

국어 수능특강

문법 개념학습 <EBS변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성과 음운은 둘 다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다르다. 음운은 이러한 음성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이다. 즉, 한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의미를 변별해 주는 기능을 할 때, 이것을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를 [kamgi]로 발음하는데, 영어권 화자들은 첫 번째 글자의 'ㄱ'은 무성음 /k/로, 두 번째 글자의 'ㄱ'은 유성음 /g/로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가 '감기'의 두 개 'ㄱ'을 동일한 음운인 /ㄱ/으로 인식하는 것과 영어권 화자들이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음운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말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서로 다른 음성일 뿐, 서로 다른 음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고기'의 두 가지 'ㄱ' 소리
- ㉡ '달, 딸, 탈'의 'ㄷ, ㅌ, ㅍ' 소리
- ㉢ '밭, 벌, 볼'의 'ㅈ, ㅊ, ㅊ' 소리
- ㉣ '부부'의 두 가지 'ㅂ' 소리

- ① ㉠ : 음성으로는 두 가지, 음운으로는 한 가지가 인식되는 사례이다.
- ② ㉡ : 초성에 쓰인 각각의 음운이 의미를 변별해 주는 사례이다.
- ③ ㉢ : 세 개의 다른 소리가 머릿속에서 같은 음운으로 인식되는 사례이다.
- ④ ㉣ : 하나의 음운이 위치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⑤ ㉠, ㉣은 음성의 차이만으로는 의미의 변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국어의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처음과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국어의 단모음은 10개, 이중 모음은 11개로 이루어져 있다.

단모음은 소리를 낼 때 혀의 앞뒤와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 구분된다.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ㅔ	ㅟ	ㅓ	ㅛ
저모음	ㅞ		ㅘ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반모음은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는 것으로 국어의 반모음에는 'ㅣ[j]'와 'ㅛ/ㅜ[w]'가 있다.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에는 'ㅟ, ㅟ, ㅟ, ㅟ, ㅟ, ㅟ'가 있고, 반모음 'ㅛ/ㅜ'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에는 'ㅟ, ㅟ, ㅟ, ㅟ'가 있다. 이중 모음 'ㅟ'는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2.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ㅔ'와 'ㅞ'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② 'ㅊ'와 'ㅟ'는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발음 도중에 달라진다.
- ③ 'ㅣ'와 'ㅡ'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높이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모음이다.
- ④ 'ㅣ'의 성격을 규정하면 [+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⑤ 'ㅞ'와 'ㅘ'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혀의 전후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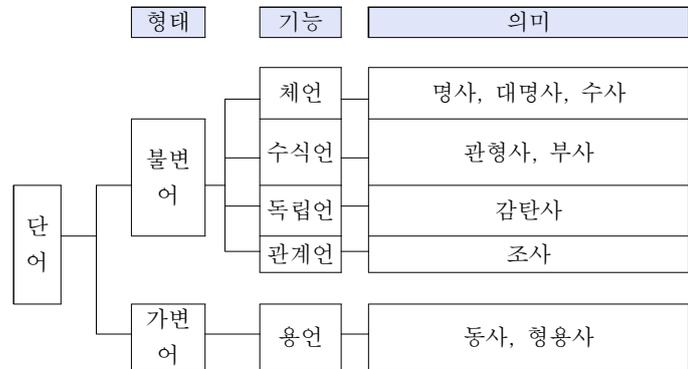
3. 이 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모든 음절에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인 단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가짐.

- ① 영감 ② 열매 ③ 아영 ④ 유리 ⑤ 여유

4. <보기>는 국어의 품사 분류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격 조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한다.
 ② 동사, 형용사는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변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③ 개별 단어가 지닌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국어의 단어는 총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④ 단어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는 것은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나누면 네 가지의 문장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주어진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01 [새 :]
 ㉠ 「1」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 새가 벌어지다. / 사람들 새로 친구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2」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 경찰이 잠깐 한눈을 판 새에 용의자가 도주해 버렸다.
 「3」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
 ¶ 너무 바빠서 쉴 새도 없다.
 「4」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
 새06
 ㉡ 「1」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 다친 손톱이 빠지고 새 손톱이 돋다. / 새 학기를 맞이하다.
 「2」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 새 건물 / 새 옷을 꺼내 입다.

덕원 : '너무 바빠서 쉴 새도 없다.'라는 문장과 '새 학기를 맞이하다.'라는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처럼 보이는 '새'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

- ① 사전 정보를 살펴보니 ㉠, ㉡의 품사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의미 파악을 시작하면 돼.
 ② 첫 문장의 '새'는 뒤에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서 체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③ 첫 문장의 '새'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의미로 홀로 쓰이는 명사임을 알 수 있어.
 ④ 두 번째 문장의 '새'는 '학기'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
 ⑤ 두 문장에 쓰인 '새'는 개별적 의미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각각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그런데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선생님은 영현이가 모범생임을 잘 아신다.’라는 문장에서 ‘영현이가 모범생임’은 자체에 주어 ‘영현이가’와 서술어 ‘모범생이-’를 갖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전체 문장 속에서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문장은 독립적, 절은 비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문장의 주성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 ②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 구조가 두 번 이상 나타날 수 있다.
- ③ 문장은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나타낸 것이므로 어절이 두 개 이상 있어야 성립한다.
- ④ 주어와 서술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⑤ 문장에서 둘 이상의 어절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장 성분 역시 두 가지 이상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7.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여름이 달려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일까. 봄이 피어나는 모습을 놓쳐 버린 나로서는 ㉣그 사실이 ㉤쩍 서글프다.

- ① ㉠ : 문장의 주어이다.
- ② ㉡ : 두 개의 어절이 모여 서술어를 이룬 구(句)이다.
- ③ ㉢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법 단위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 : 두 개의 어절이 각각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 : 두 개의 어절이 모여 형용사구를 이룬 사례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화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이다.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는 담화 생산자와 수용자로서 담화에서 필요하며, 발화는 문장을 담화 차원에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의 발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발화도 포함한다. 맥락은 담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담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담화의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맥락에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이 있다. 후자에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는 상황 맥락과 국가, 제도, 계층, 문화 매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8.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전언(傳言)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담화 생산자와 수용자만 있으면 완전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언어적 맥락만으로 담화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④ 하나의 문장만으로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⑤ 담화의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9. <보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언어적 맥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창권: 봐요, 내가 당신 ㉠잘하는 거 많다고 했잖아요.

후엔: 이젠 베트남 글보다 한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창권: ㉡그래요? 나한테 ㉢시집오기 정말 잘했네, 그러고 보니!

후엔: ㉣맞아요! 창권 씨랑 ㉤결혼 안 했으면 이모님도 못 만났고, 이모님을 못 만났으면 노래 대회도 못 나갔고, 노래 대회 못 나갔으면 라디오에 편지도 못 썼을 거잖아요.

창권: 어이구, ㉥절차가 너무 기네!

- ① ㉠에는 바로 다음 발화에 등장하는 ‘한글을 잘 쓰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은 담화를 구성하는 개별 발화가 독립성을 띠고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③ ㉣과 ㉤의 언어 표현을 통해 담화 참여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④ ㉥은 바로 전 발화에서 ‘후엔’이 한글을 잘 쓰게 된 배경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을 뜻한다.
- ⑤ 담화 생산자와 수용자가 비격식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므로 이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대 국어의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차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인명, 지명, 관직명 등 고유 명사들에 대한 차자 표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국어의 윤곽을 그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得烏失(득오실)과 得烏谷(득오곡)의 대응을 통해 ‘곡(곡)’의 옛 새김이 *실*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異次頓(이차돈)’과 ‘厭獸(염축)’의 대응을 통해서 ‘厭[싫어하다]’의 뜻을 지닌 용언 *잇다*를 재구해 볼 수 있다.

(나)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는 예사소리 계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된소리 계열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거센소리 계열은 발달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센소리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또한 ㉡고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 자음은 오늘날과는 달리 본래의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다) 고대 국어의 문법은 향찰과 이두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체언 뒤에 온 조사로는 ㉢주격(伊, 是), 관형격(矣, 衣, 叱), 부사격(中, 良中, 留), 목적격 조사(乙, 盼) 및 보조사(隱, 置) 등이 있다. 또한 용언의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활용 체계는 이미 고대 국어 당시에 완성되어 있었고, ㉣높임법 체계는 향가에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라) 고대 국어의 어휘는 전반적으로 중세 국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간혹 중세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 중세 국어의 ‘즈른 [千]’과 일치하는 ‘千隱(천은)’이 전자의 예라면, ‘우물’을 뜻하는 ‘을 [蘿井≒奈乙]’이나 ‘아이’를 뜻하는 ‘복 [蛇福≒蛇童]’은 후자의 예이다. 중국 문화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6세기 초엽 신라에서 ‘居西干(거서간), 次次雄(차차웅), 尼師今(이사금), 麻立干(마립간)’ 등 왕을 나타내던 칭호가 ‘王(왕)’으로, ㉤8세기 중엽(757년) 경덕왕 때에는 고유 지명이 한자로 바뀌었다.

10.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복잡한 동사 활용 체계가 고대 국어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 ② 고대 자료를 통해 고대 국어의 어휘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 ③ 고대 국어의 특징은 고유 명사 표기, 이두와 향찰 자료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④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두 계열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 ⑤ 고대 국어에는 ‘우물 [井]’을 의미하는 단어가 ‘乙(을)’로, ‘아이 [童]’를 의미하는 단어가 ‘福(복)’으로 표기되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닛금(尼叱今=尼斯今=尼師今)’에서 ‘叱, 斯, 師’는 ‘닛금’의 ‘ㅅ’을 표기한 것으로 ‘닛금’의 ‘ㅅ’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② ㉡ : 주격 조사로 ‘伊’, ‘是’가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고대 국어에서의 주격 조사는 ‘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 : ‘길은’을 표기한 ‘路隱’에서 ‘隱’은 한자의 음을 취한 것으로 보조사로 사용되었다.

④ ㉡ : ‘去賜里遣(가시리고), 花乎白良(고조솔바)’에서 ‘賜’는 주체 높임법의 ‘-시-’를, ‘白’은 객체 높임법의 ‘-숯(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파악된다.

⑤ ㉢ :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고유 지명을 한자어로 고쳤다.

정답 및 해설

1. 음운

교과서 개념학습 변형문제 1

1) <답> ③

ㅏ, ㅑ, ㅓ 세 개의 다른 소리는 의미를 변별해 주는 각각의 음운이다.

2) <답> ②

‘귀’와 ‘니’는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3) <답> ③

‘야영’의 경우 첫음절의 ‘ㅑ’가 반모음 ‘ㅣ [j]’+‘ㅏ’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음절의 ‘ㅑ’가 반모음 ‘ㅣ [j]’+‘ㅏ’로 이루어져 있어 <보기>의 조건에 맞는 예가 된다.

2. 단어

교과서 개념학습 변형문제 1

4) <답> ⑤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에 따라 문장 성분을 나누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 <답> ③

‘실 새도 없다’의 ‘새’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관형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홀로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쓰이기 어려운 의존 명사이다.

3. 문장

교과서 개념학습 변형문제 1

6) <답> ②

겹문장은 하나의 문장 안에 주술 구조가 두 번 이상 나온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적절하다.

①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담화 상황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③ “불이야!” 등의 감탄문은 하나의 어절만으로도 완결된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④ 주어와 서술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더 커다란 문장 안에 포함되어 하나의 문장 성분으

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기도 한다.

7) <답> ④

두 개의 어절이 하나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4. 담화

교과서 개념학습 변형문제

8) <답> ②

담화 생산자인 화자와 담화 수용자인 청자는 담화 구성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뿐만 아니라 발화, 맥락도 필요하다.

9) <답> ②

㉠과 ㉡은 앞의 사람 말에 맞장구를 치는 언어적 표현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각각의 발화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국어의 역사

교과서 개념익히기 변형문제 1

10) <답> ②

②와 관련한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고대 국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고대 국어의 어휘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11) <답> ②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야 등장한다. 고대 국어 시기의 ‘伊’, ‘是’는 주격 조사 ‘이’를 표기한 것이며, (다)를 통해서도 이 두 주격 조사가 ‘가’로 쓰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